

SICS연구보고서 22-03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

2022.10.2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목 차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요	1
총론. 개혁개방 노선과의 결별과 시진핑의 정체성 정치 강화	2
1. 시진핑 3기 체제의 성격	
2. 시진핑 3기 인사 배치의 특징	
3. 시진핑 3기의 정책기조 전망	
4. 정책적 함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I. 국내정치 분야	4
1.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일인 지배 체제 확립	
2. 당장 수정으로 장기 집권의 사상적 기초 마련	
3. 후계구도는 사라지고 세대교체는 씨를 뿌림	
4. 중국식 예측 가능한 정치의 약화	
II. 외교 및 양안정책 분야	6
1. 20차 당대회에 드러난 중국의 대외정세 인식과 정책 방향	
2. 20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담긴 대만 정책, 19대와 어떻게 달라졌나?	
3. 20차 당대회의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 기조 종합	
4. 시진핑 3기 대만해협의 전쟁 발발 가능성	
III. 경제 분야	9
1. 성과의 회고와 자축: 다음 단계 역사적 사명 강조를 위한 밑작업	
2. 20대의 경제운용 방침	
3. 전망: 국제정치 변동 속 자립자강 노선의 강화	
IV. 사회문화 분야	12
1. 전면적 농촌진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부유의 실현	
2. 고품질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세계 일류 인재양성 기지의 건설	
3. 문화 현대화 추진과 중화문화의 세계화	
4. 방역능력과 응급능력의 강화 및 공공안전 시스템의 개선	
#부록1. 중공 20기 중앙위 간부 명단	
#부록2. 중공 20기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Profile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요

○ 대회 기간 : 2022.10.16. ~ 2022.10.22.

일시	진행상황 및 안건
2022.10.15.	• 중국공산당 20대 예비회의(대회 의제, 주석단 명단, 대표 등 확정)
2022.10.16.	• 대회 개막 및 시진핑 총서기 <보고> 발표
2022.10.22.	• 대회 폐막 • 19기 중앙위원회 보고에 대한 결의 통과, 19대 중앙기율위원회 공작보고에 대한 결의 통과, <중국공산당 장정(수정안)>심의 통과 • 20기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선출
2022.10.23.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
2022.10.23.	• 20대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

○ 대회 참가자

- 전국대표 2,296명, 특별초청대표 83명 등 총 2,379명 참가.

※ 이 가운데 병가로 39명이 불참, 실제 개회식에는 2,340명 참석.

○ 대회 보고문건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분투하자(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

○ 대회 주제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널리 고양하며, 자신과 자강으로 정도를 지키며 혁신하고, 힘차게 분발하여 의연히 나아가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분투하자(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全面贯彻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弘扬伟大建党精神, 自信自强、守正创新, 踔厉奋发、勇毅前行,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 대회 결과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19기 중앙위원회 보고, 청취 및 심사.
- 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 보고 청취 및 심사: <중국공산당장정(党章) 수정안> 심의 통과.
- 중국공산당 제20기 지도부 인선.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 및 특징 (총 205명)

- 70세 이상 1명, 50~59세 95명 (46%), 60~69세 102명(49%), 연령미상 7명
- 여성 11명 (5%)
- 소수민족 9명(4.3%)
- 신진위원 99명(48%)
- 19기 후보위원 34명 (16.5%)

1. 시진핑 3기 체제의 성격

-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덩샤오핑 시기 이후 어렵게 유지되어 온 관례와 관행을 깨고 시진핑이 총서기에 다시 선출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집중영도체제'가 구축됨.
- 덩샤오핑 시기 이래 유지되어온 당정분리와 당내 견제 및 균형이라는 정치개혁의 전통이 동력을 상실. 시진핑 3기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버리고 확실성과 단일대오를 추구하게 될 것.
- 시진핑 체제의 변화는 '백년대변국'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부터 예견됨.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디커플링,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양하면서 강한 리더십, 강한 중국, 권력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2. 시진핑 3기 인사 배치의 특징

-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던 공청단(중국공산주의청년단) 출신 그룹의 실각.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서기를 비롯해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친위그룹인 '시자쥘(習家軍)'의 부상.
- 일인체제의 공고화와 후계구도의 약화: 1) 대회 최종 결의문에 시진핑 개인에 대한 권위와 중국공산당의 지도방침인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견지를 확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을 반영. 2) 향후 순혈주의 속에서도 신 지도부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충성과 업적 경쟁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시진핑 3기 체제의 국가대전략: 1)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로드맵과 2035년까지 이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 2) 폐막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향후 5년을 이상의 로드맵을 추진할 관건적 시기로 규정.

3. 시진핑 3기의 정책기조 전망

① 정체성의 정치 강화

-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기조,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함.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제도에 의존하면서 서구와 서사와 담론경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 시진핑 이데올로기의 '짜르'로 불리는 왕후닝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재보임하고 새로운 당내 이데올로그를 파격적으로 발탁.

②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 모든 국가는 실정에 부합하는 고유한 현대화의 길이 있고 중국도 더는 서구 현대화의 길을 추수하지 않겠다는 것. 중국식 현대화(인구대국 현대화, 공동부유 실현,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 평화발전 등)은 '중국의 길' 선택.

③ 산업과 핵심기술의 자주화

-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중국 공급망 디커플링도 더욱 거세질 전망. 중국도 불가피하게 참호를 깊이 파고 최대한 버티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지구전으로 대응.

④ 중국식 제도 구축과 핵심이익의 보호

- 중국은 힘의 한계 때문에 선제적으로 현상타파를 시도하지 않을 것. 다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 미국의 대중전략을 무디게 하는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다자주의 등 중국에 유리한 제도 구축 시도.

⑤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

-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부세력의 대만독립 개입이 분명해진다면 헌법에 명시한 대로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것도 분명히 함.

4. 정책적 함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 ①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 압박,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상황, 정책 피로를 야기하는 코로나 봉쇄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 신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경제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 새 지도부의 면면과 정책 기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② 중국공산당이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의 거리'가 더욱 벌어지고 그만큼 협력의 공간도 줄어들게 될 것.
- ③ 주변국과 개발도상국을 회유하거나 설득함으로써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자 하겠지만 주변국들이 대미 편승을 분명히 선택하거나 중국과 거리 두기를 구체화한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복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④ '연성화된 북한'처럼 느껴지는 중국의 낯선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한중 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전략적 소통도 약화되면서 상호정책에 대한 신뢰 결여가 발생할 것.
- 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중국의 동의를 쉽게 구하기 어렵고 중간재 수출 중심의 한중 무역구조나 중국에 쏠린 한국의 반도체 투자 등의 현상은 중국의 산업과 기술 자주화 속도의 추이에 따라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
- ⑥ 북·중 관계는 기존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 ⑦ 전략적 명확성만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함. 장기적으로 가치와 이익을 섞는 외교적 위선, 사안별로 복합방정식을 푸는 창의적 상상력, 대중정책을 위한 합의와 타협, 시진핑 시대를 함께 읽고 연구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한중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소통 부재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

I 국내정치 분야

1.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일인 지배 체제 확립

- 여러 예상과 달리 리커창(李克強), 후춘화(胡春華) 등 공청단 세력의 실각과 시진핑 총서기 측근 세력의 전방위 포진으로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가 확고해짐.
- 기존 관행의 지속보다는 변화를 채택하면서 당내 비공식적으로 공유되었던 여러 관행이 거의 무너졌으며 시진핑 3기에 새로운 관행의 제정이 예견됨. 예컨대, 혁명 원로들이 합의한 10년의 권력교체 주기가 무너지고, 간부 종신제 폐지 이후 젊은 간부 중심의 세대정치를 위한 세대교체도 현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정치국 상무위원 내 수평적 협력관계도 측근 세력의 대거 입성으로 사실상 수직적 위계관계가 고착화됨.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짐.
- 여성과 소수민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던 정치국 위원들의 여성과 소수민족 배려의 기존 관행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후춘화는 19대 정치국 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음.
- 이번 당대회는 인사의 측면에서 기존 관행의 지속과 변화라는 중국정치의 오랜 관행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치의 한 측면이 무너지면서 예측 불가능의 중국 정치가 도래하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음.

2. 장기 집권의 사상적 기초 마련

- 1945년 7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당장(黨章)에 삽입되면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놓은바, 이번 당 대회에서도 '시진핑 사상'과 '두 개의 확립'을 통해 당내 영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장기집권의 여운을 남김.
- 19차 당대회 당장 개정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 지침으로 명기한 이후, 당 대회 최종 결의문에서 "시진핑의 당 중앙 및 전당에서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두 개의 확립'을 중요하게 언급하여 시진핑의 당내 독보적 지위를 확인.
- 19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은 데 이어 이번 당장 개정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자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는 설명을 덧붙여 사실상 '시진핑 사상'을 당의 장기 지도사상으로 확립.
- 한편 개정된 당장에는 "전 과정 인민민주", "전인류 공동 가치", "투쟁정신 발양과 투쟁 능력(本領) 증강",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 견인", "통합 발전과 안전" 등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던 치국이정(治國理政) 관련 내용이 모두 당장에 들어감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지도이념이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확인해줌.
- 시진핑 주석의 지도이념 관련한 여러 내용을 당장에 삽입하고 이를 중국공산당의 이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의 성과로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가 시진핑 주석의 사상 의지에 기대어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3. 후계구도는 사라지고 세대교체는 씨를 뿌림

- 이번 당대회 인사의 최대 이변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낙마와 후춘화 부총리의 좌천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후춘화 부총리는 18대, 19대 정치국 위원에서 20대 중앙위원에 내정되고도 정치국 위원으로는 선출되지 못하고 좌천됨.

- 후춘화의 사실상 좌천으로 20차 당대회 인사 결과에서 후계구도 가능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오히려 덩쉐샹(丁薛祥)이 '60후(60後)'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했으나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보면 후계자는 될 수 없음.
- 리창(李强)과 차이치(蔡奇)의 발탁으로 리홍중(李鴻忠)은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고, 덩쉐샹의 발탁으로 천민얼(陳敏爾)도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여 향후 중국 국내정치는 파벌간 대립이 아닌 시자진(習家軍)내 권력 투쟁 가능성을 잉태함.
- 후춘화와 왕양, 리커창의 좌천 내지 낙마는 중국 내부정치에서 더 이상 파벌적 경쟁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공청단 중앙 제1서기를 역임한 루하오(陸昊)가 중앙위원에 재선임되고 허쥔커(賀軍科)가 중앙위원에 진입한 것은 공청단 세력의 원천 제거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대신에 중앙후보위원에 스광후이(時光輝), 양진바이(楊晉柏), 련마오쥔(連茂君), 우하오(吳浩), 류제(劉捷), 류창(劉強), 샤린마오(夏林茂), 탄웨이중(覃偉中), 귀닝닝(郭寧寧, 여) 등 20여 명이 넘는 '70후'들이 들어가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통한 후계구도 형성 가능성은 높아짐.

4. 중국식 예측 가능한 정치의 약화

- 그동안 중국정치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성의 정치를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적이 적지 않았음. 예컨대 총리 후보는 부총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올라간다는 등 여러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이번 당대회 인사에서 나타난 관행의 파기는 중국정치가 지난 개혁개방 이후 특히 14차 당대회 이후 비공식 규범 내지 관행으로 적용해왔던 여러 제도적 정치들이 무력화되는 출발점에 놓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 특히 당내 이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활발한 토론으로 결론을 유도하던 집단지도체제의 유명무실화는 중국정치의 권력 자원이 소수 일인에게 집중되는 권력 독점의 폐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임.
- 또한 10년 주기 권력 교체를 통해서 선거를 통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 이양을 보여주었던 중국의 역사적 경험도 사라지면서 향후 중국정치의 예측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이견에 대한 용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부문과 영역을 책임지는 여러 간부들에게 주어졌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 또한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치가 한층 더 교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음.
- 성과와 경험을 중시하는 기초 위에서 단계별 성장이나 파격 발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인사가 자칫 '충성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정책 경쟁'이 아닌 '충성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중시 정치가 후퇴할 수 있음.

1. 20차 당대회에 드러난 중국의 대외정세 인식과 정책 방향

- 제19차 당대회 때는 시진핑이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전방위 외교 구도를 언급하고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성공을 자찬함.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의 세계관이 5년 전에 비해 보수화됨. 정치보고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변화, 역사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전례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표현함.
-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는 동승서강(東升西降)이 시진핑의 국제정세 인식의 출발점이 됨.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자신감이 계속 커져왔지만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과 견제로 국제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 이번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미래 5년의 외교노선을 설명하면서 신중한 표현들이 사용됨.
 - 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는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 한편 개발도상국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임을 암시함.
 - ② 중국 외교의 3대축은 선진국과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순으로 중시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임을 밝힘.
 - ③ “진실한 친성(親誠) 이념과 정확한 의리관을 갖고 개도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개도국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히며 브릭스 국가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함. 글로벌 문제에 대해 신흥시장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중국은 NATO 국가,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가 더욱 개발도상국으로 기울어지는 추세가 있음. 주변국의 범위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개발도상국에 포함됨.
 - ④ 제18차 및 19차 당대회에서 “책임지는 대국”이라는 개념이 쓰여졌다면, 이번 20차 보고에서는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임을 보여주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항하는 국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는 표현이 쓰여졌고 시진핑의 구두 보고에는 생략됨.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이 되기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 패권주의에의 반대, 이중 잣대의 반대 등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질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전망.

2. 20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담긴 대만 정책, 19대와 어떻게 달라졌나?

○ ‘92 컨센서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

- 19대에서 4차례 언급. vs. 20대에서는 구두보고 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서면 보고서에서만 한 차례 언급됨.

○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에 대한 언급

- 19대에서는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 방침의 견지를 천명. vs. 20대에서는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를 통일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격하.
- ➔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의 위치를 방침에서 방식으로 낮추며 다른 방식에 대한 모색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

○ 통일의 의미

- 19대에서는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으로 규정. vs. 20대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 요소로 규정.

○ 통일의 장애요인

- 19대에서는 대만독립분자의 분열 행위 경고. vs. 20대에서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독립 분자에게 동시 경고.

○ 무력 사용에 대한 입장

- 19대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음. vs. 20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통해 비평화적 수단 사용의 여지를 남겨 놓음.

○ 기타 내용

- 19대에서는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유화적 표현 사용. vs. 20대에서는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적 방략” 제기

3. 20차 당대회의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기조 종합

- 중국공산당은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
- 시진핑 집권기에 대만과의 통일은 양안관계 해결 이상의 함의를 갖게 됨. 대만과의 통일이 중국 국가발전 전략의 큰 틀에서 두 번째 백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상정.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 의제가 되었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등과 직결되는 핵심이익이 됨.
- 향후 5년간 중국공산당은 제3차 역사결의에서 처음 제시한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방략”에 근거하여 대만 문제를 다룰 것. 총체 방략은 대만 문제 해결의 최상위 방침으로 정치적 입장, 실천 방안, 행동 강령 및 정책 등을 총괄하게 될 것.
- 총체방략은 정치적 입장에서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를 기조로 삼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시진핑이 2019년 1월 2일 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민주적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일국양제 대만방안’의 모색을 대만 통일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삼을 것.
- 중국공산당의 대만 정책은 1)대만 독립의 반대, 2)정치적 통일의 촉진, 3)사회경제적 통합의 촉진, 4)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로 이뤄져 왔음.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펠로시의 대만 방문 및 대만정책법안의 상정 등 미국의 개입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반대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를 가장 큰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과 대만의 유착을 경계하게 됨. 지난 8월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발표한 세 번째 <대만 백서>에서도 “통일에 저항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4. 시진핑 3기 대만해협의 전쟁 발발 가능성

- 양안관계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이 상승하면서 구조적으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의 개입 정도가 커지면서 양안관계는 중국-대만-미국의 삼자 게임(tripartite game)이자 미중 게임의 부속물이 되었음.

-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중국과 대만 당국 간에 대화와 협상의 채널이 단절되고 대만이 미국 편승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양안관계의 키를 쥐고 있음. 미국, 중국, 대만 모두 각각 국내 여론 및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양안관계가 양면 게임(two-level game)의 딜레마에 빠져들.
- 대만과의 통일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비전과 의지가 분명해지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맞물리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
- 전쟁의 대가와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시진핑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상황. 국내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차단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현재 중국의 군사적 능력(연합작전 및 상륙작전 능력의 부족), 전쟁의 비용과 대가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여러 압박 수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급하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중심에 두고 대만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 갈 것임.

1. 성과의 회고와 자축: 다음 단계 역사적 사명 강조를 위한 밀작업

○ 소강사회의 전면 실현

- 전통적 발전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탈빈곤 돌격전에서 승리”.
- ※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 ‘소강사회의 전면 실현(全面建成小康社会)’의 기준으로 탈빈곤을 제시.
-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832개의 빈곤 현이 모두 빈곤 상태에서 탈피,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민이 탈빈곤에 성공, 960만여 명의 빈곤 인구가 이주하여 “절대빈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평.
- 소강사회의 전면 실현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백년(당 창립 이후 백년) 분투 목표’였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지로 기능하고 있음.

○ 신발전이념 정착

- ‘안정 속 발전’ 기조, 이른바 ‘경제의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 기조 확립.
-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발전시키고, 확고하게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지·유도.
-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이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임을 명시. 즉 양적 발전 일색의 발전노선이 질적 발전으로 변화됨을 의미.

○ 신발전구도 정착

- 신발전구도의 핵심 : 질 높은 발전과 쌍순환 체제.
- 기존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의 취약점은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혁신주도 산업 등으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부가가치 가치사슬 및 최종소비시장의 역할(스마일 곡선의 상단부)로 고착된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 높은 발전’ 목표 제기.
- 쌍순환(双循环): 국제대순환(국내와 글로벌 경제간의 연계)과 국내대순환(중국 내 경제 생태계)으로 구성되는 발전체계로서, 국내경제에 중심을 두고 국제 연계를 통해 동력을 얻는 체제.
- 공급측 구조개혁 등 제도 및 체제 수준의 개혁 진행하여 경제운용 효율 강화.
- 자유무역 시범구,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외국인 투자제도 자유화 등 개방 가속.

2. 20대의 경제운용 방침

1) 내수 위주의 질 높은 발전

○ ‘전국적 통일대시장(全国统一大市场)’

-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키워드. 이 외에도 “초거대규모 시장(超大规模市场)” 등의 표현으로부터, 내수시장을 키워 대내외 경제운용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알 수 있음.
- 단순히 큰 시장규모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수준의 복합적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국내에서 완전히 구현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개념임.

○ 국유자본, 국유경제의 최적 배치

-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만이 아니라, 국유부문을 양과 질 모든 방면에서 더 키우겠다는 의미.
- 전략산업 및 국내 산업사슬의 취약고리에 중앙정부 자금이 국유기업을 통해 투자될 가능성 농후.

○ 소비시장 확대

- 소비력과 구매력이 내수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 향후 대대적 소비 활성화 정책이 등장할 것. 19대에서 이미 '국제소비중심도시', '노후가전 교체 보조금' 등 정책이 나온 바 있음.
-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등 기존 거점 이외에 송안(雄安) 신규, 청두-충칭지역(成渝) 통합 경제권이 강조되며 향후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떠오를 것을 예고.
- 향촌진흥 및 발전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업그레이드를 넘어 소비시장 육성의 의도가 포함. (cf. "변경지역 발전",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구도" 등)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강화하여 내수확대"

- 국가가 내수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며 내수확대가 거시경제정책 목표의 핵심이 될 것을 암시.
-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지도 역할 발휘" 역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음.

2) 신형산업화와 경제개방 강화

○ 실물경제(实体经济)의 부각

- 실물경제(实体经济, real economy)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가격 총량"을 지칭하며, 금융경제(financial economy)와 대별되는 개념. 제조업 외에도 물류 및 운송, 지식기반 서비스 등 포함.
- 실물경제의 강조는 다음의 의도를 지님. ①국내 제조업 발전(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②금융버블의 최대한 억제, ③산업경제 위주로 소비 및 내수시장 육성하겠다는 의도.

○ 신형산업화 6개 구호: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

- 제조, 교통운수, 디지털이 실물경제 발전의 핵심 부문으로 떠오를 것임.
- 특히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긴밀한 통합"이 언급되어,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및 디지털 인프라 방면에 대규모 중장기 투자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국내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요소 유치"

- 중국의 내수확대가 단지 고립경제에 머무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개방이라는 경로'를 통해 글로벌 자금 및 자원을 흡수하는 근거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
-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外资准入负面清单)' 축소, 서부육해신통로(西部陆海新通道) 확장 등 제도 및 인프라 방면에서 상징적 정책 추진.

○ 금융개혁 심화

- 금융안정시스템 및 감독관리 강화
-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로 직접융자(주식, 회사채 등) 비율 제고
➔ 금융업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초점

3) 과학기술 자립

○ "과학·교육이 나라를 흥하게 만든다(科教兴国)"

- 과학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함께 슬로건으로 내걸어, 과학과 교육이 공히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동력임을 명시한 사상임.
- 전략과학자, 과학기술 선도 인재 및 혁신팀, 청년과학 기술인재, 고급 엔지니어 등 육성 강조.
- 차세대 리더인 20대 중앙후보위원 171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공계열 학과 출신임.

○ 국가 단위 과학기술 진흥 정책

-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 국가실험실 체계 등.
- 재정지출에서 과학기술 경비 할당 증가.

3. 전망: 국제정치 변동 속 자립자강 노선의 강화

1) 자립과 자강

- 현재 미중 전략경쟁은 전방위적 대립과 냉전이 아닌, 미국이 하이테크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자신은 리쇼어링과 대규모 첨단산업정책을 통해 기술초격차를 유지하여 중국을 영원한 2등 국가로 주저앉히려는 구도로 이행하고 있음.
-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립과 자강을 통해 대외의존을 낮추며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근미래에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전으로 돌입하고 있음.
- 상기 배경 속에서 20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 목표인 ▲내수 확대, ▲과학기술 자립, ▲실물경제 발전, ▲인재양성 등을 바라보면, 이 목표들은 중국이 “국내만으로도 완결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주고 있음.
- 따라서 ‘자립과 자강’ 기조 및 제반 정책방향은 향후 장기지속될 것임.

2) 우리의 리스크와 기회

○ 리스크 요인

- 중국과 한국은 수십 년간 수직적 분업체계 속에서 상호 윈윈 협력구도를 형성해 왔고,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데에는 중국의 부상이 구조적으로 작용.
- 그러나 20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중국의 ‘자립과 자강’ 기조는 한중 수직적 분업구조를 보다 수평적 분업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한국 산업경제와 중국 산업경제가 대체관계로 이행함을 의미함.
- 전통적 맹방이자 거대한 경제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무역상대국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 ‘양자택일’의 압력을 점차 심화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이 첨단기술 견제이고 그 대표적 방법으로 하이테크 관련산업 공급망 옥죄기, 반도체 금수 등이고, 실제로 IPEF, 칩4 동맹 등의 조치가 이미 채택되었음.
- 따라서 중국으로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시장으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막대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경쟁과 ‘양자택일’이 심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걸림돌.

○ 기회 요인

- 코로나 위기가 진정된 후, 중국 내수시장에는 발전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저발전 지역의 구매력이 강화되며 시장활력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임. 제조업 방면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치 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각종 소비재 수출도 호조를 띌 수 있음.
- ➡ 다만 향후 중국이 국내 산업사슬의 자립적 면모를 강화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국내기업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해야 함.
- 미국의 하이테크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특히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러브콜이 강해질 수 있으며, 미중 ‘양자택일’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하이테크 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음.

- 정치보고 내용의 15개 주제 중 ▲과학교육흥국 전략의 실시와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 기반 강화 ▲문화적 자신감 및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영광 창조 ▲민생과 복지의 개선과 인민 생활의 질 제고 등이 사회 분야와 관련이 있음.

1. 전면적 농촌진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부유의 실현

- 20차 당 대회 보고 서두에서 중국이 이미 '빈곤퇴치 돌격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고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함. 이것을 지난 10년간의 '3가지 큰 성취'에 포함된다고 밝힘. 이는 중국이 향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됨.
- '공동부유'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수준, 고용안정, 주택보장, 교육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함. 핵심은 공동부유의 실현은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당이 영도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
-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완화되면서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양극 분화와 분배의 불공정이 중국 대중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떠오름. 2020년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이었는데, 2018년 코넬대학과 베이징대의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데이터는 0.52에 달함. 이는 중국 사회의 불평등이 이미 사회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
-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제로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되는 등 다양한 악재에 직면. 게다가 시진핑의 3연임으로 국제여론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중국 국내 사회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즉 '공동부유'는 민생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며, 중국 일반 대중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사회안정과 정권 안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 추가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고 설명했으며 "양극화를 절대적으로 방지"할 것이라 밝힘.
- '공동부유'의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3차 분배조정체계를 구축 및 완비'할 것을 강조. 그러나 민영기업, 특히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향후 '3차 분배'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나고 있음. 류허 전 부총리가 지적했듯이 "민영경제는 중국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시장주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3차 분배'는 오히려 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져 중국을 불평등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음. 그러나 20차 당대회 보고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지 않음.

2. 고품질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세계 일류 인재양성 기지의 건설

- 미국이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스스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이번 보고에서는 "과학교육흥국 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주도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새로운 분야와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 향후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교육,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함.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디지털경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7.2%로 전체 GDP의 36.2%를 차지했음. 또 다른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디지털 전문인력 부족이 1100만명에 달하며,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 밝혔음.

3. 문화 현대화 추진과 중화문화의 세계화

- <당대회 보고>에서는 문화적 자신감 및 경쟁력과 관련해 5가지 사항을 명확히 함. ▲강한 응집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구축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 ▲사회 전반의 문명화 수준 제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과 번영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 강화 등.
- 이데올로기 사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가 핵심. 중국 정부는 현대 공공 문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중대한 문화 산업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중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증강시키고자 함. 여기에는 언론미디어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포함됨. 최종적으로는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를 강화해 이념교육을 상시화,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목할 점은 정치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당 전체가 청년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청년들을 무장할 것”과 “광범위한 청년들이 흔들림 없이 당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을 요구함.
-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인재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양성하는가?”가 중국공산당이 강조하는 근본 문제임.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과목과 교과서는 인재 육성의 매개체인 동시에 당과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인재 양성 방향을 엿볼 수 있음. 2021년 중국 교육부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 학생 독본(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学生读本)』을 전국 범위의 초·중·고·대학에 도입하여 교육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교과 필수과목이 됨. 『어문』 교과서에는 고문(古文)교육과 혁명전통 관련 내용이 대폭 증가. 중국이 국내에서 이데올로기의 ‘단결과 통일’을 강화하는 것이 단지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방역능력과 응급능력의 강화 및 공공안전 시스템의 개선

- 당대회 보고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제로 코로나’를 견지할 것”을 명확히 함. 또한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통합 추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3년의 방역조치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했다.”고 명시함.
- 특히 이번 보고에서 “공중보건시스템을 완비하고 중대 전염병 예방 및 구호 시스템과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해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됨. 엄격한 방역조치가 중국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의 과도한 방역조치가 사건사고로 이어져 대중들의 불만 정서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차 당대회의 보고에서는 방역 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즉 봉쇄, 대규모 검사, 건강코드, 격리, 여행제한 등 조치들이 향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식 방역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 인구 유동이 제한되면서 관광, 소매, 물류 등 제3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제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세계은행은 최근 경제 전망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이라 전망함.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이름	성별	직책	비고
시진핑(习近平)	남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리창(李强)	남	국무원 총리	양회에서 취임예정
자오러지(赵乐际)	남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양회에서 취임예정
왕후닝(王沪宁)	남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양회에서 취임예정
차이치(蔡奇)	남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丁薛祥)	남	국무원 상무부총리	양회에서 취임예정
리시(李希)	남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중앙 정치국 위원

이름	성별	직책	비고
딩쉐샹(丁薛祥)	남	위원	
시진핑(习近平)	남	위원	
마싱루이(马兴瑞)	남	위원	
왕이(王毅)	남	위원	
왕후닝(王沪宁)	남	위원	
인리(尹力)	남	위원	
스타이펑(石泰峰)	남	위원	
류궈중(刘国中)	남	위원	
리시(李希)	남	위원	
리창(李强)	남	위원	
리간제(李干杰)	남	위원	
리수레이(李书磊)	남	위원	
리홍중(李鸿忠)	남	위원	
허웨이둥(何卫东)	남	위원	
허리펑(何立峰)	남	위원	
장여우샤(张又侠)	남	위원	
장궈칭(张国清)	남	위원	
천원칭(陈文清)	남	위원	
천지닝(陈吉宁)	남	위원	
천민얼(陈敏尔)	남	위원	
자오러지(赵乐际)	남	위원	
위안자쥘(袁家军)	남	위원	
황쿤밍(黄坤明)	남	위원	
차이치(蔡奇)	남	위원	

중앙 서기처			
이름	성별	직책	비고
차이치(蔡奇)	남	서기	
스타이펑(石泰峰)	남	서기	
리간제(李干杰)	남	서기	
리수레이(李书磊)	남	서기	
천원칭(陈文清)	남	서기	
류진궈(刘金国)	남	서기	
왕샤오홍(王小洪)	남	서기	
중앙 군사위원회			
이름	성별	직책	비고
시진핑(习近平)	남	주석	
장여우샤(张又侠)	남	부주석	
허웨이둥(何卫东)	남	위원	
리상푸(李尚福)	남	위원	
류전리(刘振立)	남	위원	
마오화(苗华)	남	위원	
장성민(张升民)	남	위원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이름	성별	직책	비고
리시(李希)	남	서기	
류진궈(刘金国)	남	부서기	
장성민(张升民)	남	부서기	
샤오펬이(肖培)	남	부서기	
위홍추(喻红秋)	여	부서기	
푸쿠이(傅奎)	남	부서기	
순신양(孙新阳)	남	부서기	
류웨신(刘学新)	남	부서기	
장푸하이(张福海)	남	부서기	
왕샤오핑(王晓萍)	여	상무위원회 위원	
왕아이원(王爱文)	남	상무위원회 위원	
왕홍진(王鸿津)	남	상무위원회 위원	
류진궈(刘金国)	남	상무위원회 위원	
류웨신(刘学新)	남	상무위원회 위원	
쉬뤄더(许罗德)	남	상무위원회 위원	
순신양(孙新阳)	남	상무위원회 위원	
리시(李希)	남	상무위원회 위원	
리신란(李欣然)	남	상무위원회 위원	만주족
샤오펬이(肖培)	남	상무위원회 위원	
장성민(张升民)	남	상무위원회 위원	
장푸하이(张福海)	남	상무위원회 위원	
천궈창(陈国强)	남	상무위원회 위원	
자오스용(赵世勇)	남	상무위원회 위원	
허우카이(侯凯)	남	상무위원회 위원	
인바이(阎柏)	남	상무위원회 위원	나시족
위홍추(喻红秋)	여	상무위원회 위원	
푸쿠이(傅奎)	남	상무위원회 위원	
무홍위(穆红玉)	여	상무위원회 위원	

기본 인적사항

성명	시진핑(习近平)	
직책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출생연월	1953.06.	
성별/민족	남 / 한족	
본적/출생	산시 푸핑(陕西富平)	
입당년도	1974	

주요 경력

- 2013 -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중앙위 총서기
- 2010 - 2012 국가 부주석, 중앙군사위 부주석
- 2007 - 201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 2007 - 2007 상하이 당서기
- 2003 - 2007 저장성 당서기
- 2000 - 2002 푸젠성 성장

기본 인적사항

성명	리창(李强)	
직책	국무원 총리(예정)	
출생연월	1959.07.	
성별/민족	남 / 한족	
본적/출생	저장 루이안(浙江瑞安)	
입당년도	1983	

주요 경력

- 2017 - 중앙정치국 위원, 상하이시 서기,
- 2016 - 2017 장쑤성 서기
- 2013 - 2016 저장성 성장
- 2011 - 2012 저장성 부서기, 정법위 서기

기본 인적사항		
성명	자오러지(赵乐际)	
직책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예정)	
출생연월	1957.03	
성별 / 민족	남 / 한족	
본적 / 출생	산시 시안(陕西西安)	
입당년도	1975	
주요 경력		
■ 2017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 2012 - 2017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 2007 - 2012 산시(陕西)성 당서기 ■ 2003 - 2004 칭하이성 당서기 ■ 2000 - 2003 칭하이성 성장		

기본 인적사항		
성명	왕후닝(王沪宁)	
직책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예정)	
출생연월	1955.10	
성별 / 민족	남 / 한족	
본적 / 출생	산둥 라이저우(山东莱州)	
입당년도	1984	
주요 경력		
■ 2017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 2014 - 2017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판공실 주임 ■ 2012 - 2014 중앙정치국 위원 ■ 2007 - 2012 중앙서기처 서기 ■ 2002 - 2007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 1995 - 1998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 조장		

기본 인적사항		
성명	차이치(蔡奇)	
직책	중앙서기처 서기	
출생연월	1955.12.	
성별 / 민족	남 / 한족	
본적 / 출생	푸젠 유시(福建尤溪)	
입당년도	1975	
주요 경력		
■ 2017 - 중앙정치국 위원, 베이징시 당서기 ■ 2016 - 2017 베이징시 시장 ■ 2015 - 2016 중앙국가안전위원회판공실 상무부주임 ■ 2014 - 2015 중앙국가안전위원회판공실 부주임 ■ 2013 - 2014 저장성 부성장 ■ 2010 - 2013 저장성 조직부장		

기본 인적사항		
성명	딩쉐샹(丁薛祥)	
직책	국무원 상무부총리(예정)	
출생연월	1962.09.	
성별 / 민족	남 / 한족	
본적 / 출생	장쑤 난통(江苏南通)	
입당년도	1984	
주요 경력		
■ 2018 -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 2015 - 2017 중앙판공청 상무부주임 ■ 2013 - 2015 중앙판공청 부주임 ■ 2012 - 2013 상하이시 정법위원회 서기 ■ 2007 - 2012 상하이시 당위원회 비서장 ■ 2006 - 2007 상하이시 판공청 주임		

기본 인적사항		
성명	리시(李希)	
직책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출생연월	1956.10.	
성별 / 민족	남 / 한족	
본적 / 출생	간쑤 량당(甘肅兩當)	
입당년도	1982	
주요 경력		
■ 2017 - 2022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당서기 ■ 2015 - 2017 랴오닝성 당서기 ■ 2014 - 2015 랴오닝성 성장 ■ 2013 - 2014 상하이시 부서기 ■ 2011 - 2013 상하이시 조직부 부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